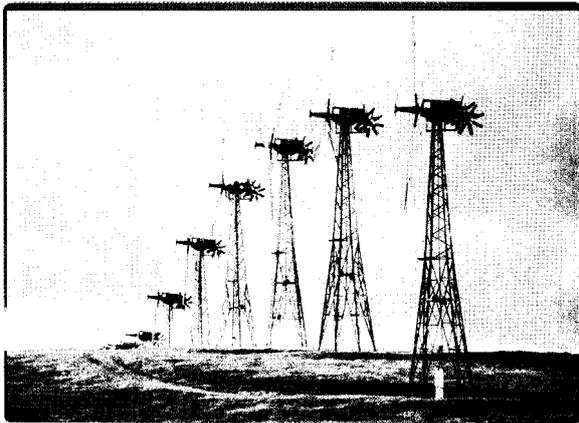




## 한-중 스마트 그리드 시장 확보, 표준으로 견인한다

민·관 스마트 그리드 협력단 중국에서 기술표준 협력회의 ... 스마트 미터 등 6개 분야 중점 협력키로



▲ 민간표준협력 채널 마련으로 인해 한-중 양국 업체들 간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예정이다.

국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EU와의 기술협력에 이어 한-중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양자협력과 민간 차원의 다자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자, LS산전,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LS전선 등 28명의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그리드 협력단이 지난 6월 14일~17일 중국 중앙정부인 국가표준위원회(SAC)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투자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영전력망공사(SGCC) 등을 방문했다. 스마트 그리드 협력단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양국 업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표준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력의 중점 추진사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표준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업계 간 실질적인 기술·표준·비즈니스 연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즉 민간기업들 간 표준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과 중국의 국가표준위원회 등 양국 정부 간 기술표준에 대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스마트 그리드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중점 협력 분야는 스마트 미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저장장치를 포함한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 가전 등 6개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스마트 가전 분야의 양국 산업체 간 표준협력에 적

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기술표준협력의 효과와 지속적 운영을 위한 컨트론타워로서 양국 코디네이터 중심의 'Joint Coordination Committee' 신규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정문 체결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 간 SG 기술표준 정책이슈, 표준 프레임워크 진행상황의 정기적 교환·검토, 연 1회를 원칙으로 동북아포럼과 병행해서 개최하는 국제표준화협력 등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G 표준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훈련과 연구시찰 등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SAC와 KATS는 연 1회 이상 SG 표준과 전문적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자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SG 표준과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韓-中 양측 업계는 상호 간의 강점분야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력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에 대한 양국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아 '전력저장용 배터리와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동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전력계통연계용 전력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증사업과 향후의 실증사업에 한국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 삼성전자, LG전자는 '스마트 가전과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한 홈 수용가 내부 네트워크 기술표준'에 관한 협력을, LS산전은 스마트 미터를 포함한 계량인프라 분야 제품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韓-中 전기차 충전인프라 업체들은 충전기 표준화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가능 분야 공동 발굴에도 합의했다.

이번 중국과 기술표준 협력은 양국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실익 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02-509-7294),

주력산업표준과(02-509-7275)

# 세계 표준리더,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전략계획 협의

허경 기술표준원장, 스위스 제네바의 ISO 전략상임위원회 참석해 주요국과 표준협력 확대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지난 6월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SO 전략상임위원회에 참가해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표준화기구 대표들과 ISO 표준정책을 논의했다.

ISO 전략상임위원회는 ISO의 주요 정책과 전략 기획·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영, 중, 독, 프 등 17개국 대표와 ISO 사무총장과 3개 정책위 임원이 참석하는 ISO의 핵심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의 5개년 정책인 『2011-2015 ISO 전략계획』에서 중점 분야인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성장,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표준화전략을 포함한 2012년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ISO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제표준, 개도국의 참여와 역량 강화, ISO 프로세스 개선 등 7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검

검한다. 아울러 ISO 전략상임위원회는 주요국 최고위 표준정책 대표가 참석하고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표준화정책과 상호 정책협력을 논의하는 표준외교의 장으로 활용된다.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독일,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올해 9~10월 경 확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위 임원 진출에 대한 전략적 선거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ISO 기술관리이사, ILC 이사, IEC 표준관리이사에 출마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각 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규제와 인증제도에 대해 협의하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가전 등 주요 이슈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399, 7400)

# 한·중·일 민관 표준전문가 ‘조화 표준화’ 본격 논의

3국 조화가 시급한 분야 발굴과 정책연구 수행 위한 ‘연구그룹 구성’ 제안

기술표준원은 6월 22일~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중·일 정부 간 표준협력 회의와 3국 표준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동시 개최했다. 한·중·일 3국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 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3국의 조화가 시급한 분야의 발굴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중·일 세 나라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협력에 대한 3국 공조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고,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위원회 임원 진출 예정인 후보자에 대한 상호지지 등 협력을 이끌어 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회의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표준화정책, 호텔, 교통수단 등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 활동 공조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의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노융합과 정보통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3국 정부대표와 민간 표준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에서는 신규 협력과제로 우리가 제안한 노트북충전기와 일본이 제안한 스마트 시티 등 총 9건의 과제에 대한 국제표준화 협력과 한·중·일 3국의 공동 관심 분야인 원자력, 화물컨테이너 RFID 등 공동 표준화 중인 7건의 표준협력과제를 논의했다.

기술표준원은 “한중일 표준협력이 3국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를 촉진하며 진정한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3국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동북아표준포럼을 통한 표준화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399, 7400)

〈표1〉 신규 협력과제

	제안국/차	과제명
1	한국	노트북 충전기
2	한국	잉크젯 인쇄회로 집적력 테스트
3	한국	부품내장 PCB 전기적 신뢰성 테스트
4	한국	수소 및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5	중국	고휘도 LED용 인쇄회로기판 시험방법
6	중국	인쇄회로기판의 안전성 스파크
7	일본	실제 자동차
8	일본	스마트 시티 인프라스트럭처 표준화
9	일본	ISO/TC 130(그래픽기술)에 관한 협력

〈표2〉 계속 협력과제

	과제명	과제명
1	화물컨테이너 RFID	5 세라믹
2	원자력	6 공공인쇄표준
3	보조기구	7 인쇄회로기판
4	하수처리시스템	



## 국제표준 주도할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2명 신규 임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의료정보 2개 분야 추가 선정 ... 7월 1일 기술표준원에서 임명장 수여식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1일 기술표준원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의료정보 등 추가로 선정된 2개 분야의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를 임명했다. 추가 선정된 스마트 물류 분야는 권용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장이, 스마트 의료정보 분야에는 정영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이 선정되었다.



### 스마트 물류 권용장

- 학 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박사
- 주요 경력** · 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물류표준화 연구단장  
· 현 한국철도학회 학술이사  
· 현 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편집위원  
· 전 국가물류선진화 기획위원회 위원장  
· 전 교통신문 객원논설위원



### 스마트 의료정보 정영복

- 학 력** · 인하대학교 기계공학 학사/송실대 산업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박사
- 주요 경력** · 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본부장  
·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본부장